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7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 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외교협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 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우리끼리’ 행복한 도전
등산 마니아들도 달린다

우끼 마라톤클럽

산길을 걷던 등산마니아들이 이제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산악회원 서너명이 모여 달려보자는 뜻을 같이해 결성한 ‘우끼마라톤클럽’(이하 ‘우끼’). 창립 1년도 안된 신생클럽으로 ‘우리끼리’를 줄여 클럽명칭을 만든 ‘우끼’는 현재 회원 총 14명(남자 8명·여자 6명)으로 구성된 ‘마라톤 초보’들이다.
특히 이들은 연령층이 47~60세인 중장년층의 늦깎이 마라토너들이다. 비록 달리

기는 늦게 시작했지만 평소 산행으로 단련된 탄탄한 체력만큼은 어느 마라톤 동호회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우끼’의 또 다른 특징은 회원들 대부분이 등산·마라톤 외에도 수영·헬스까지 하는 말 그대로 운동 마니아들이다.

중장년층 초보 마라토너

이들 중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명순(49) 회장은 수영·헬스·요가까지 총 5가지의 운동을 즐기는 놀라운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다른 회원들보다 마라톤을 일찍 시작해 이제까지 풀코스 3번, 하프와

10km는 다수 완주한 모임내 ‘마라톤베터랑’이다.
클럽의 최고령인 박종훈(60)씨는 훈련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성실파로 이번 대회에서 10km 4번째 완주에 도전한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도 하는 진선익(51)씨는 지금까지 하프 4번, 10km 3번을 달려 팀내에서는 대회 다수 출전자에 속한다.
‘우끼’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천에서 모여 보훈회관~유덕동까지 왕복 10km 거리를 1시간내에 달리며 기량을 쌓아오고 있다.
또 훈련의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가끔은 월드컵보조경기장으로 훈련장소를 옮겨



창립 1년도 안된 신생 ‘우끼마라톤클럽’은 3·1절 마라톤대회에서 회원 모두 10km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 출전 10km 완주 하겠다”

트랙을 25바퀴 정도 돌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달리기 외에도 매달 들깨·셋째주에는 어김없이 배낭을 메고 산으로 떠난다.

박 회장은 “아직은 마라톤이 ‘겉을만 단계’이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조금 더 달린다 보면 수준급 회원들이 탄생할 것이다”면서 “이번 3·1절 마라톤 대회는 첫 출전인 만큼 회원 모두 10km를 끝까지 달릴 계획이다”고 대회 출전의지를 밝혔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종목이라도 모두 경험 해 보고 싶은 ‘우끼’회원들은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계기로 올해에도 ‘우리끼리’ 사고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질주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서원기자 swseo@kwangju.co.kr

“1분1초도 아깝다”... 훈련 또 훈련



KIA 잔류군 강진캠프 24시

김종국 등 스타급도 12시간씩 맹훈련

더 큰 무대를 꿈꾸는 KIA 타이거즈 잔류군 선수단의 강진캠프가 뜨겁다.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 가지 못한 KIA 잔류군 선수들은 지난달 20일부터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잔류군에는 재활군 한기주와 몸상태가 안 좋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종국, 장성호, 홍세완 등 경쟁한 스타선수도 있지만 팬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의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단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선수는 물론 정식선수가 목표인 신고선수들도 있다.
미야자키 캠프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강진 캠프는 5일 훈련, 1일 휴식 로테이션이다.
오전 7시40분 산책으로 시작되는 하루 스케줄도 분 단위로 나뉘질 만큼 빽빽하다. 점

심과 저녁식사가 유일하게 한 숨 돌릴 수 있는 시간. 한 시간 가량 야간훈련이 진행된 뒤 야간 강진의 하루가 저문다.
아침 기상과 취침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정에 선수들은 알아서 일찍 잠자리에 든다. 휴일에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이 더 많다.
강진캠프의 생활은 15년차의 베테랑 김종국에게도 엄격히 적용된다. 갑상선 정밀검진을 받느라 일본 합류가 늦어진 김종국은 까마득한 후배들과 모든 일정을 똑같이 소화하고 있다. 엑스트라 훈련에도 열의를 보인다.
지난달 강추위가 이어졌을 때에도 강진의 24시는 똑같이 흘러갔다. 김종국이 “프로 생활 15년동안 그렇게 춥게 야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손발이 꽁꽁 얼어 강추위에도 선수들은 변함없이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코칭스태프와 현장스태프들도 선수들만큼 강진 캠프가 고되기는 마찬가지.
김지훈 배터리 코치는 투수들의 피칭 연습 때 직접 마스크를 쓴다. 잔류군 불펜포수 역할을 담당했던 진경호가 일본 캠프에 합류하면서 포수는 변선웅이 유일하다.
배팅볼도 코칭스태프들의 몫이다. 최태원 주루코치는 자칫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선수들을 위해 훈련시간 내내 파이팅을 외치느라 목이 다 쉴 지경이다. ‘훈련’을 강조하는 김대진 2군 총괄코치도 훈련 도우미로 나선다. 2군을 총괄하는 오현표 차장과 전준홍 매니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공을 쏘느라 하루휴가 가는 줄 모른다. 장비를 챙기고, 선수단 관리까지 도맡아 하느라 일손이 모자라면서 한기주도 재활군 스케줄이 끝나면 외야에 나가 공을 쏘는다.
잔류군은 차가운 바닷바람보다도 힘겨운 불투명한 미래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희망은 놓지 않고 있다.
숨돌릴 틈 없는 스케줄과 열악한 환경에도 ‘제 2의 김상현’을 꿈꾸는 선수들의 희망이 강진캠프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진베이스볼파크에 캠프를 차린 KIA 잔류군이 수비조와 주루조로 나누어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WBC 한일전’ 스포츠TV 시청률 세계 6위
내달 6일 개막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6일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10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팀 간 2차전, 팀 당 14경기, 총 56경기를 치르며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KIA는 6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삼성과 첫 대결을 갖는다. 문학에서는 SK와 두산이 만나고, 목동에서는 히어로즈와 LG가 격돌한다. 롯데는 한화를 대전으로 불러들여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시범경기동안 홈에서 10경기, 원정 4경기를 치르게 되는 KIA는 3월21일 LG 트윈스와의 잠실경기를 끝으로 전력 점검을 마무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이 2009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TV 시청자가 많이 지켜본 스포츠 경기로 꼽혔다.
1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런던 소재 ‘이니셔티브 퓨처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그룹’이 지난 한해 단일 스포츠 경기 TV 시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 작년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FC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단판 승부가 1억900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1억6000만명이 시청한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결승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애리조나 스틸러스의 경기(작년 2월)였다.
3위는 포틀랜드(F1) 바레인 그랑프리도 5

천400만명이었고 4위는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세계기록(9초58)을 세운 독일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 레이스로 3천300만명이 TV로 지켜봤다.
WBC 한일전은 2천70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돼 6위에 자리했다. 부분 시청자까지 포함하면 8천200만명이나 된다. 이 조에는 야구 한일전으로만 나왔지만 작년 3월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WBC 결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시청률 톱 10 가운데 WBC 한일전과 배드민턴 한중전을 비롯해 박지성(맨유), 한국계 NFL 스타 하인스 워드(피츠버그) 등 무려 4개가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출전한 경기였다.
/연합뉴스

KIA 미야자키 캠프 팬 투어 참관단 모집

KIA타이거즈가 미야자키 캠프 팬 투어 참관단을 모집한다.
KIA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단을 응원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전지훈련 투어

상품을 판매한다.
참관단은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구마모토, 후쿠오카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전지훈련 참관 및 소프트뱅크와의 친선경기를 관람 할 수 있다. 사인회 및 포토타임 등도 예정되어 있으며 후드티

와 모자, 사인볼 등 기념품도 마련됐다.
참가 비용은 성인 62만원, 어린이(98년 3월 이후 출생자)는 55만원으로 일동여행사(02-725-3400)를 통해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강진 잔류군 캠프 참관단 이벤트 행사는 모집 시작 2분만에 예정인원 40명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ood Insurance'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insurance services.